

국보급 소주, 그들은 어떻게 IMF 위기를 넘겼을까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최윤진 감독
‘소주전쟁’

오래전 일이다. 안식년이라 유럽에 교환교수로 가 있던 C 교수에게 한국의 제자로부터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상자 안에 신문지 여러 겹으로 싼 (버블 랩도 흔치 않았던 아주 오래 전이었던가 보다) 소주 한 병이 들어 있는 것을 본 C 교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한다. 소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런 존재였다.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찾는 존재. 밥상에 색다른 반찬이 올라와도 생각나고, 진수성찬에도 비싼 양주나 와인보다는 소주를 우선으로 여기는 민족이라 거의 반려주라 일컬어도 과언이 아닌 존재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전국을 평정했던 ‘참이슬’을 만들어낸 진로소주 회사가 1997년 외국자본골드만삭스에 의해 어이없는 위기를 겪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영화 ‘소주전쟁’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20세기 말인 1990년대를 되돌아보자. 당시 우리의 가장 높은 회사에 충성하는 회사원들로 가득했다.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드물었던 시절이라서였을까. 필자



최윤진 감독 '소주전쟁'.

(주)쇼박스 제공

가 대학에 몸담았을 적만 해도 나이 적은 후배교수들조차 “남자란 아침 밥술가락을 놓자마자 밖으로 나가야 해요”를 기정 원칙인 양 얘기를 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나 애정을 일터에 쏟는 가장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딱 그런 인물이 국보소주 재무이사 표종록(배우 유해진)이다.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7년, 전국을 평정하리만큼 소주계의 강자인 국보소주도 예외 없이 자금난에 휘청거린다. 이 타임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투자사(기업 사냥꾼) 솔킨의 명석한 직원 최인범(배우 이제훈)이 서울에 파견된다. 그는 목적을 감춘 채 컨설팅을 가장하여 국보에 접근, 최종부도를 이끈 주역이다. 회사가 곧 인생이라 믿던 종록은 무능력한 회사 대표 석진우(배우 손현주)에게 ‘명정환

X...’ 욕을 얻어먹으며, 인범을 글로벌 금융전문가라 철썩같이 믿어가며 고군분투하다 종래는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는다. 그렇다면 인범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그는 서울대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미국 자본주의의 물이 든 인물이다. 그에게 회사란 월급의 의미, 즉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그저 객체에 불과하다. 인범과 종록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 한다. 그런 만큼 나중에는 서로의 인생관에 조금씩 호환가치를 나눠 갖는다. 이 호환가치는 우리의 국민소주 회사가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깨달음일지도... 부제가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위험)’였다가 ‘빅 딜(Big Deal: 큰 거래)’로 바꾸어졌다. 필자로서는 원 부제가 더 적절해 보인다. 시대가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놓는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변치 않아야 할 도덕적 가치관은 중요하니까. 영화를 관람하고 난 후,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다. 후일담이 좀 있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로서는 영화가 갖는 소재의 비중에 비해 드라마틱하게 풀어나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았지만, 이 정도의 후일담을 남기는 거라면 주제나 소재의 성공이 아닌가 싶다. 영화 개봉에 붙는 안타까운 뒷얘기도 있다. 영화 제작 도중 원작자가 나타남에 따라 제작사에서는 감독을 공동저자로 위치를 재조정하고 영화나 포스터에 감독 크레딧을 빼놓은 점이다. 앞으로 저작권 분쟁 사례로 남을 것이므로, 영화에서처럼 불미스럽지 않도록 바람직한 방향의 해결을 고대해본다.

언젠가 성경에 ‘소주’가 기재돼 있다는 얘기로 들썩였던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다. ‘포도주’는 마땅히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좌중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종래에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돌려 알아냈다. ‘내 입에선 포도주와 소주가 나온다’(미가2:11)를 위시하여 5군데 정도 등장하지만, 소주에 대한 긍정적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 그 사회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소주’ 단어가 등장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같은 구절을 가톨릭 성서에 ‘독주’로 번역하는 것을 보면.

영화에 등장하는 ‘술 소비량 1위국’이 우리나라라는 통계는 아무래도 놀랍다. 달고 쓴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국민소주 때문이지만, 1위 만큼은 다른 민족에게 내어주기를 바라본다.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청년들

취재수첩
정승우
취재2부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이른 아침부터 곳곳의 사전투표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길게 늘어선 투표 행렬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청년세대의 투표 참여였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학교 용지관에

마련된 용봉동 사전투표소 앞은 학우들과 함께 투표에 나선 옛된 대학생들로 가득했다. 청년들은 어떤 후보가 자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당보다는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를 판단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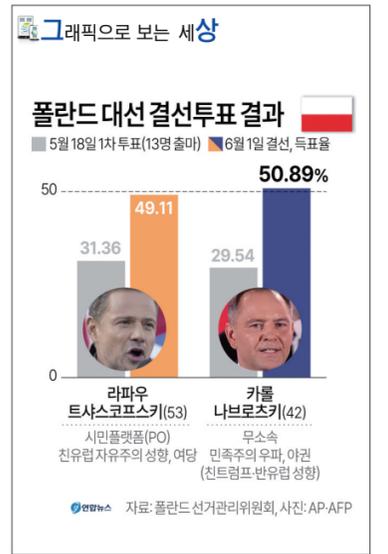
대학생 김은미(21)씨는 “기표소 안에서 마지막까지 깊이 고민하며 선택했다”며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정당이든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라면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생들은 부모님과 대답각을 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굽히지 않았

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부모님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첫 투표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투표를 하고 싶었다”는 대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주 주말마다 열리던 집회에도 청년들은 광장에서 함께했다.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온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끄는 데 동참했고 민주당의 회복에 힘을 보탤었다. 실제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던 상당수 청년들의 발길이 사전투표소로 향했다. 이번 대선에선 청년들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과거엔 정치에 무관심하던 이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정보를 나누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선거철에만 청년들을 바라보지 말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이후,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청년들이 조기 대선을 통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나서며 경험을 축적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 취재를 통해 청년 세대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 그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조직 변경 공고
본 회사는 2025년 6월 2일 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일치에 의하여 유한회사 성암이앤씨에서 주식회사 성암이앤씨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03일
유한회사 성암이앤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81번길 34, 6층(화정동)
대표이사 고을상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예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통 (062)519-0710
全南日報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